

折風의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Julpoong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VI. 折風의 使用者의 範圍
I. 緒論	VII. 折風의 名稱과 語源
II. 折風에 관한 諸說	VIII. 古代 中國의 弁과 高句麗의 折風
III. 折風에 관한 中國의 文獻 記錄	IX. 結論
IV. 折風과 幘과의 關係	參考文獻
V. 折風의 形態와 構造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julpoong* of Koguryo.

The meaning, form, structure, user, the origin of the word the *julpoong* were examined.

The *pien* of the ancient China and the *julpoong* of Koguryo were examin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Chinese and the people of Koguryo used the meanings of the *julpoong* differently : the Chinese referred the *julpoong* to the conical hat with the seams including one seam on it, while the people of Koguryo called the *julpoong* as the conical hat with seams excluding one seam on it.

The people of Koguryo called the *julpoong* with one seam as the *chack* 幘.

이 논문은 1994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The *julpoong* was used by all people of Koguryo : the government officials, envoys, and the commoners wore it.

The word *julpoong* of Koguryo was derived from *dulband*, *dulbänd*, *düband*, *dölbänd* of Persians. The word *julpoong* is correspondent with the above the Persian words.

The *julpoong* of Koguryo word was transliteration of *dulband*(*dulbänd*, *düband*, *dölbänd*) meaning turban or sash.

The hat called *chack* 幘 by the people of 고구려 was the conical hat with one seam and their meaning of the *chack* 幘 wa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e *chack* 幘 of the Chinese.

The *julpoong* a kind of conical hat, was called by the *pien* by the ancient Chinese.

I. 緒 論

高句麗의 折風에 관해서는 일찍이 朝鮮時代 諸 先儒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어왔으며 그것의 形態에 대한 諸說이 나오게 되었다. 近來에는 高句麗의 古墳벽화가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古文獻 記錄만으로는 明確히 알 수 없었던 高句麗의 冠帽에 대한 學者들의 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므로 折風의 形態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正確한 折風의 뜻이 규명되지 못하여 왔고 따라서 折風의 形態에 대하여도 確實한 論證이 이루어져 오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折風의 名稱에 대하여도 星湖의 漢語의 字義의 解析以來 論議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위에 提起된 問題들을 折風을 中心으로 하여 검증하여 보고자 하며 折風과 幘과의 關係도 더 明確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折風에 關한 諸說

고구려 시대의 折風과 羅濟笠에 관하여는 이미 李朝時代의 몇몇 學者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던 바이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고분 벽화와 같은 유물이 발굴되어 있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 先賢들은 中國 古代의 簡略한 記錄만을 가지고서 恒常 그것을 笠子와 方笠 等으로 比定하며 그것들과 連結시키려고 苦心하여 왔다.

李瀛은 그의 著書 星湖德說에서 折風에 笠字를 더하여 折風笠이란 말을 使用하면서 이것을 殷나라의 章甫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高句麗의 折風笠은 李白의 樂府 高麗詞의 金花 折風帽를 使用하여 金花의 花는 方笠의 四葉郎四簷이라고 하면서 折風 卽 方笠이고 後에 折風은 蔽陽笠으로, 蔽陽笠이 黑漆笠으로 變하였다고 하였다. 또 李瀛은 折風의 名稱에 대하여 「何謂折風 按靈樞經 風從西北來 名曰折風 卽立冬之候也 似是催傷萬物之義 此冠宜於冬寒故名也」라고 하면서 折風이라는 單語의 語源을 語意를 가지고 解答을 얻으려고 하면서 겨울氣候의 西北風과 관련시키고 折風은 겨울에 適當한 冠이라고 하였다.

李晬光은 藝峰類說에서 羅濟笠은 高麗 末期의 方笠이고 壬辰以後의 李朝 中葉의 羅濟笠이며 折風巾은 대개 笠子類라고 말하고 있다.

鄭東愈(1744~1809A.D)는 書永篇 下卷에서 方笠은 羅濟以來的 制冠이며 折風 卽 方笠이라는 李漢의 說에 讚同하고 있다.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折風 卽 羅濟笠라고 하고 있다. 新羅太宗 以前부터 羅濟笠은 公私通行之常着冠帽라고 하면서 李朝時代에는 오직 郡邑史만이 羅濟笠을 썼다고 하였다.

李漢, 李晬光, 鄭東愈, 李圭景 등이 折風에 對한 諸說을 否定하고 李如星은 그의 著書 朝鮮服飾考에서 折風은 弁狀冠帽로서 高句麗, 加羅, 新羅에도 通用되었던 上代朝鮮의 特殊冠帽였고 감투類에 屬하는 冠帽로 認定된다고 結論지었다.¹⁾

그러나 李殷昌은 李如星이 折風이 弁形 冠帽였다는 것을 證明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提示한 視覺的 資料에서 中國의 隋煬帝의 弁冠과 三才圖會의 皮弁, 武弁 등의 冠帽를 形態의 으로 관련 지은 것에 對하여 疑問點을 提起하였다. 또 그는 高句麗의 折風帽는 中國과 關係가 없는 우리 固有의 것이고 北方系 文化의 樣相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같은 變形의 冠帽라도 韓國의 折風帽가 前後 平面의인 變形임에 比하여 中國의 弁冠, 皮弁, 武弁은 左右 平面의인 弁形이므로 그 冠帽의 意匠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라고 主張하였다.²⁾

그는 또 李如星이 감투와 수건이 折風帽에서 계승되었다는 推定을 하였다라고 主張하였으나 李如星은 그렇게 推定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平安道 남자가 많이 쓰는 감투는 折風에서, 여자가 많이 쓰는 手巾은 高句麗의 中國에서 傳承된 것은 아닐까로 推定하였다.³⁾ 그는 감투와 수건은 三國時代의 幘巾에서 계승된 것일지는 몰라도 折風帽에서 계승된 것은 아니라고 李如星의 推論에 反論을 提起하였다⁴⁾. 그리고 그는 折風帽의 形態的 特徵은 三角形이지만 前後 平面의인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平面系의 形態를 보이는 高갈, 갈대기, 戰巾 등에서 折風의 傳承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李如星과 다른 見解를 펴려하였다.⁵⁾

李如星은 折風의 形態가 弁狀의 冠帽라고만 證明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左右 平面의인지 前後 平面의인지에 對하여는 그의 見解를 分明히 밝히지는 않았다.⁶⁾

Ⅲ. 折風에 關한 中國의 文獻 記錄

高句麗의 折風에 關한 最初의 記錄은 中國側 資料로서 三國志(魏志) 東夷傳 高句麗 條에 「其公會衣服 皆金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如 著折風 形如弁」이라 나타난다. 그 이후의 後譯書 東夷列傳 高句麗 條, 南齊東夷傳 高句麗 條 梁書 諸夷傳 高句麗 條 通典 東夷 高麗條 冊府元龜에도 折風에 關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그 記事들은 위에 引用된 三國志(魏志) 東夷傳 高句麗 條의 記錄과 同一하다.

위와 유사한 기록들은 北史 東夷傳 高句麗 條와 魏書 高句麗傳 等에도 나타나며 李白의 樂府 高麗詞에도 折風에 關한 기록이 보인다. 翰苑 蕃夷部 高麗 條에도 折風에 關한 기록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南齊書 東南夷傳 東夷高麗國의 기록과 同一하나 誤字와 脫字가 있다.

1) 李如星, 朝鮮服飾考 1947, pp. 198~199.

2) 이은창, 교양국사총서, 29, 한국 복식의 역사, 1978, p. 174.

3) 李如星, 1947, p.199

4) 이은창, 교양국사 총서, 29, 한국 복식의 역사, 1978, p. 175.

5) 同掲書

6) 李如星, 朝鮮服飾考, 3, 1947, p. 198.

IV. 折風과 幘과의 關係

고구려의 冠帽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였음에도 折風과 幘과의 관계나 또는 이 두 冠帽의 共通點이나 또는 差異點 등이 分明하게 밝혀지지 못하여 왔다. 이는 제한되고 단편적인 古代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古文獻의 해석의 어려움에 基因된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면 고구려의 折風과 幘에 관한 中國의 문헌을 기초로 하여 고구려의 折風과 幘과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南齊書 東南夷 高麗國傳에 「高麗俗 服窮袴 冠折風一梁 謂之幘 使人在京師 中書郎王融戲之曰 服之不衷 身之災也 頭上定是何 答曰 比即古弁之遺像也」라고 하는 記錄이 있다. 高句麗의 冠帽에 관한 위의 기록은 翰苑(卷 30) 蕃夷部 高麗條(脫字가 있지만), 通典(卷 186) 高句麗傳에도 引用되고 있기도 한데 南齊書의 高麗國傳의 記錄은 짧지만 그것은 折風の 種類, 形態, 構造, 高句麗人의 折風과 幘과의 差異點과 關係에 對한 疑問點을 풀어줄 수 있는 貴重한 資料이다.

三國志 魏志를 비롯하여 歷代 中國史書의 高句麗 冠帽에 對한 記錄을 보면 古代 中國人은 高句麗人의 冠帽에 對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推測되며 또한 折風이라는 用語는 그들에게 익숙한 單語였던 것으로 理解된다.

南齊書 高麗國傳의 「冠折風 一梁謂之幘」이라는 記錄에 依據하면 高句麗人은 一梁折風을 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高句麗人이 幘이라고 불렀던 冠帽는 中國人이 折風이라고 稱했던 折風의 一種인 것이다. 卽 折風에는 一梁인 것부터 梁의 數가 一梁보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高句麗人은 一梁 折風을 特別히 幘이라고 稱하였고 一梁보다 더 많은 梁이 있는 나머지 折風을 折風이라고 불렀다는 意味로 解析된다.

梁이란 冠帽의 縫合線을 일컫는다. 卽 一梁折風 所謂 高句麗의 幘은 그 構造面에서 縫合線이 하나가 있는 것이다. 冠帽에 縫合線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冠帽의 瓣은 두개로 構成되어 있다는 뜻이다. 一梁折風(高句麗人의 幘)은 縫合線이 前後 中心으로도 左右中心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假定을 할 수 있다. 高句麗人의 幘(卽 一梁折風)의 梁(縫合線)이 前後 中心으로 있었는지 左右 中心으로 있었는지 또는 두 가지가 共存했는지는 다른 곳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 개의 縫合線이 前後中心으로 있을 때의 冠帽는 左右에 各各 瓣이 하나씩 있게 된다. 이 瓣은 左右 平面的인 形態의 것이 된다. 한 개의 縫合線이 左右中心으로 있게 될 때의 帽는 前後에 各各 한개씩의 瓣이 있게 되므로 이것은 前後 平面的인 形態의 帽가 된다.

고구려 折風の 瓣이 2개인 것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卽 一梁 折風은 帽體를 구성하는 2개의 帽瓣이 있어야 한다. 이 冠帽가 소위 高句麗人 스스로가 幘이라고 불렀던 冠이며 折風과 區別하여 幘이라 불렀다. 一梁 以上の 折風 卽 소위 고구려人 스스로 折風이라고 불렀던 좁은 의미에서의 折風은 二梁, 또는 그 以上の 梁數가 있는 冠帽였다는 의미이다. 折風の 帽瓣이 가령 4개, 6개, 8개 등이 된다고 假定할 때 이러한 折風은 끝이 뾰족하고 어느 쪽에서 보아도 形態面에서는 같은 모양이 된다.

이와 같이 折風の 種類는 梁數가 多樣하며 그 梁數가 折風の 形態와 特性을 決定하고 高句麗人에게는 折風과 幘의 이름도 區別하는 要素가 되었음이 證明된다.

환언하면 古代 中國人의 折風의 概念은 高句麗人의 折風에 대한 概念보다 더 廣義로 사용되었던 것이 증명된다. 中國人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冠帽은 高句麗人이 幘이라고 불렀던 것까지 포함한 것이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高句麗人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것은 中國人의 一梁折風 卽 高句麗人 스스로 幘이라고 區別하여 불렀던 冠帽을 除外한 折風을 意味한 것이었다.

이로써 古代 中國人의 折風과 高구려인인 折風의 개념의 차이와 高구려인인 噴의 개념과 의미가 규명되었다. 또한 高구려의 折風과 幘과의 관계과 이 두 관모의 다른 점과 특징도 밝혀졌다.

高구려인이 소위 幘이라고 불렀던 관모 즉 中國人이 一梁折風이라 불렀던 관모의 형태가 一梁일때에라도 그것의 位置에 따라서 左右 平面的인 것과 前後 平面的인 것이 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서는 다시 南齊書의 기록이 중요하다.

V. 折風의 形態와 構造

三國志(魏志) 東夷傳 高句麗 條를 비롯하여 그 이후의 中國의 古문헌은 高구려人의 折風에 대하여 한결같이 折風形如弁이라고 설명하였다. 折風의 형태는 大體로 帽頂이 뾰족한 弁狀 즉 三角狀의 관모였다는 사실은 학자들이 이미 밝힌 바이다. 그럼에도 折風은 모장이 뾰족한 弁形冠帽였다는 정도에서 그칠 뿐 折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折風과 幘과의 관계도 분명한 규명이 없었다.

앞에서 본 南齊書의 記錄을 주의해 볼 때 高구려人은 소위 中國人이 一梁 折風이라고 칭하였던 것을 幘이라 칭했으며 이것은 中國 古代弁의 遺像이라고 하였다. 中國古代 弁의 모양은 釋名 釋 首飾에 弁如兩手相合拊時也라고 한 것에서 양손을 서로 마주 합하여 손벽을 칠 때의 모양이라는 것이다. 이 記錄에 의거하면 高구려人의 幘 卽 古代 中國人의 一梁 折風이라고 說明한 高구려의 幘은 左右 平面的인 冠帽이다. 이 모양의 관모는 高구려의 遺物에서 뿐만 아니라 新라의 遺物에서도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高구려의 幘 卽 中國人이 이해했던 一梁 折風이면서 左右平面形 冠으로 縫合線(帽瓣을 서로 붙인 線)이 前後로 있는 형태의 冠帽은 鎧馬塚 현실 서벽 천정 받침 1층 개마도의 行列 인물 중 앞에서 두번째 인물이 쓰고 있는 소위 金羽式 鳥羽冠이라고 불리는 冠이다(그림 1). 高구려人 噴의 또 하나의 예는 같은 鎧馬圖의 行列 인물 중 앞에서 첫번째 인물의 冠이다(그림 2).

이 冠은 紫色羅에 金銀 장식을 한 金羽冠으로 한 개의 두드러진 立華飾을 한 特殊한 양식의 冠이다.

평양 부근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高구려의 透彫花紋金銅冠도 形態가 高구려의 幘形이다. 이 冠은 高구려의 유일한 금관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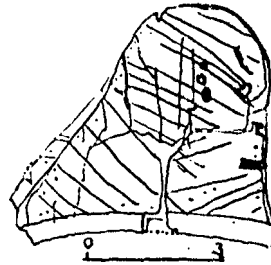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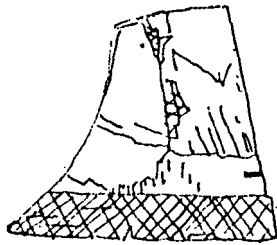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관모에서도 高구려의 噴에 속하는 종류의 관모들이 있다. 식리총 출토의 백화수피 弁形帽(그림 3), 금관총 출토의 백화수피 弁形帽(그림 4), 皇南洞 제98호 고분 南墳 出土 銀製 弁形帽(그림 5), 天馬塚 出土 金製 弁形帽(그림 6) 등은 모두 그 형태면에서 高구려의 幘에 해당되는 冠帽이다. 이 冠帽들은 左右 平面的이며 梁에 해당되는 線은 前後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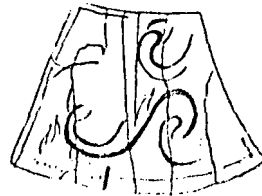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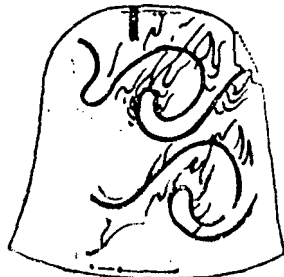
<그림 1> 개마총 현실 개마도 행렬 인
물中 앞에서 두번째 人物의 관 즉 金羽式
조우관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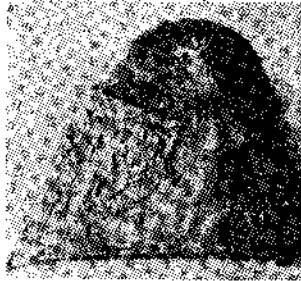
<그림 2> 개마총 현실 개마도 행렬 인
물中 앞에서 첫째 人物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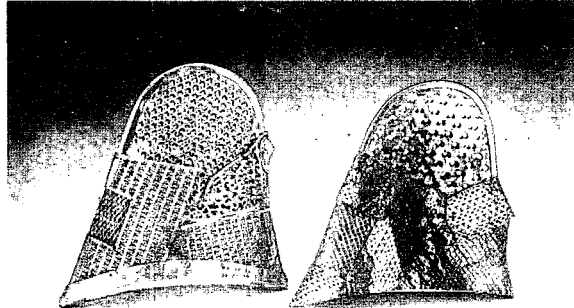
<그림 3> 식리총 출토 백화수피 변형모(좌:방정형, 우:원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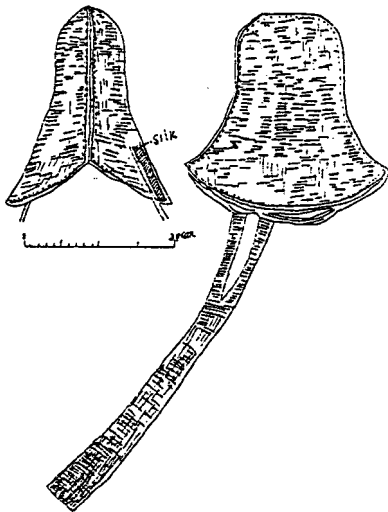
<그림 4> 금관총 출토 백화수피 변형모(좌:원정형, 우:방정형)



<그림 5> 황남동 98호 고분
남분 출토 은제 변
형모(제98호 남분
약보고)



<그림 6> 금제관모. 경주 천마총(좌), 금관총(우)
출토(신라 5~6세기, 경주 국립박물관)



<그림 7> 몽고 Noin Ula 출토 원
정형 백화수피모

右로 제작된 것들이다. 몽고 노인올라(NoinUla) 고분출토 圓頂形 白樺樹皮帽도(그림 7) 금관총 圓頂形 白樺樹皮 弁形帽과 같은 形이다. 金鈴塚 出土의 陶製騎馬人物形容器의 冠帽도 縫合線이 前後 中心으로 있는 一梁의 折風形 卽 高句麗人의 噴形에 속하는 것이다.

고구려인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관모 즉 古代 中國人의 折風의 개념으로는 고구려인의 噴(一梁折風)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折風에 대한 고구려 折風에 관한 시각자료는 별로 찾을 수 없다. 卽 고구려인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관모 즉 中國人의 折風의 개념에서 一梁 以上の 梁이 있는 折風은 龜神塚의 二人의 武士들이 쓴 관모와 安岳 第二號墳 門衛武士 二人의 관모(그림 9)에서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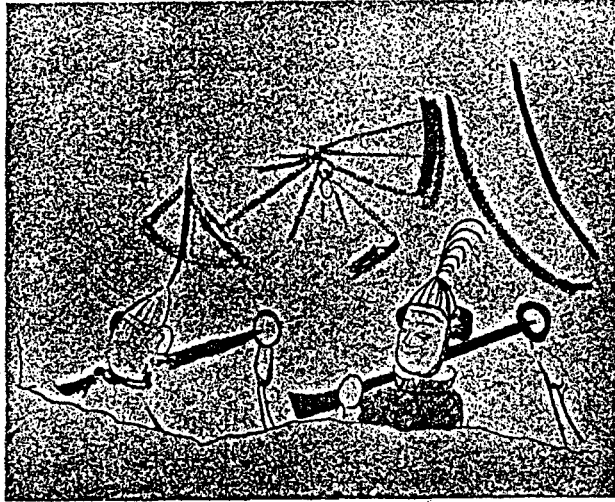
梁數 卽 縫合線이 하나 以上인 折風 卽 高句麗人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折風의 例는 龜神塚 武

士의 쓰개(그림 10)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쓰고 있는 쓰개는 모두 帽頂이 뾰족한 弁形의 多瓣帽로서 高句麗人의 折風인 것이다.

多瓣折風形 帽은 安岳第二號墳 벽화의 門衛武士圖에서 二人의 武士가 쓰고 있는 帽에서 보인다.(그림 9, 10) 二人의 帽은 같은 형태인데 帽頂에 一人은 黑色의 깃털 같은 것을 묶은 다발을 꽂았고(그림 9) <그림 10>의 人物은 赤色 깃털 같은 것을 묶은 다발을 帽頂에 꽂은 것 같다. 두 人物의 帽뒤에는 양쪽에서 리본으로 묶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安岳二號墳 門衛武士의 冠帽은 龜神塚 武士의 冠帽과 그 形態가 同一하지만 帽瓣의 瓣數는 安岳二號墳 武士의 것이 더 많다.

高句麗 벽화에는 많은 종류의 冠帽가 발견되지만 高句麗人의 折風 卽 縫合線이 하나 以上인



<그림 8> 龜神塚 前室四壁人物 武士의 쓰개 (朝鮮古蹟 圖譜)



<그림 9> 門衛武士圖. (安岳第二號墳, 5世紀初~6世紀初, 高句麗 古墳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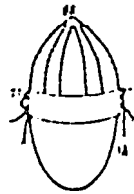
<그림 10> 左同

折風은 별로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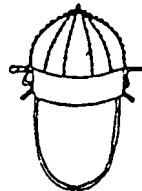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고구려 시대의 반가 사유상 불상(그림 11)의 冠帽은 弁形인데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全 帽體에는 草紋이 있고 모테의 左右에는 끈을 꿰기 위하여 만들어진 듯한 구멍이 각각 하나씩 있다. 이 冠帽의 縫合線은 앞의 양쪽에서 三角狀으로 좁혀 올라간



<그림 11> 金銅半跏思惟像佛像(6세기 후반,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일보, 1991. 1. 7. p. 5)



<그림 12> 天子皮弁(名物圖)



<그림 13> 皮弁(禮器圖)

두 줄의 장식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 實物을 보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앞의 三角形 장식선을 봉합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弁은 六瓣折風 또는 六縫合線의 折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佛像 冠帽는 古代 中國의 皮弁과 거의 같은 모양이다.

VI. 折風의 使用者의 範圍

折風은 고구려 小加의 公會用으로 사용되었음이 三國志(魏志) 東夷傳 高句麗條에 其公會衣服 皆金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이라 보인다.

魏書(552A.D.) 高句麗條에는 調奢 太奢 大兄 小兄이라고 부르는 官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折風을 쓴다고 있으며 弁形인 折風의 양옆에 鳥羽를 꽂아서 貴賤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들과는 달리 北史 高句麗傳에는 人皆頭著 折風 士人加插 二鳥羽라 있고 隋書에는 人皆皮冠 使人加插二鳥羽라 있어 折風과 皮冠은 같은 것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北史에서는 士人, 隋書에서는 使人이 二鳥羽를 각각 折風과 皮冠에 꽂는다고 되어 있다.

士人은 학식을 닦은 사람, 將士, 人民 등의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士人은 學子의 뜻도 있으나 北史의 士人은 仕와 같은 글자로 士子, 仕子, 仕者는 官吏, 官職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使人은 使者로서 여러 뜻이 있는데 諸侯의 臣下로 일을 보러 보냄을 받는 사람 또는 朝廷에서 地方에 파견하는 使節, 즉 節度使, 觀察使, 按察使와 같은 사람을 뜻한다. 使人은 使者라는 말과 同一語인데 諸侯의 臣下로서 使臣으로 오는 사람을 뜻한다.

翰苑 卷 30 蕃夷部 高麗條에는 賤者冠



<그림 14> 皮弁과 韋弁圖(三才圖會)

折風이라 있어 折風은 賤者의 冠으로 나타난다. 舊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條에 庶人衣褐載弁, 新唐書 東夷列傳 高句麗條에 庶人衣褐載弁이라 있어 折風을 漢人은 弁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折風의 使用범위는 小加, 調審, 太審, 大兒, 小兒 官名에 속했던 者의 公會用으로 나타나는 데 三國志를 비롯하여 後漢書, 그 외 이 記錄을 따른 史書에는 折風에다가 二鳥羽를 꽂았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魏書를 비롯한 다른 史書에는 官職者, 士人, 使人은 折風에 二鳥羽를 꽂았다는 것으로 나타나며 北史에는 모든 사람이 折風을 썼다고 하고 翰苑에는 折風은 賤者의 쓰개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折風은 처음에는 官職者의 冠이었는데 차차로 모든 사람의 冠으로 使用되었는가? 처음에는 折風에 二鳥羽를 꽂지 않았는데 時代가 흐르면서 꽂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折風을 쓰게 되고 賤者까지 그것을 쓰게 되니 身分區別을 위하여 折風에 二鳥羽를 加插하게 되었을까?

三國志(290A.D.)와 魏書(552A.D.)의 製作年代는 약 260年이나 간격이 있다. 그러므로 三國志가 편찬될 時期에는 折風을 使用하는 것만으로도 身分區別이 可能하였는데 魏書가 쓰여질 때쯤에는 折風을 使用하는 것만으로는 身分區別이 어렵게 되어 官職者나 또는 使臣 등 上流層과 一般庶民이나 賤者와 區別하는 手段으로 二鳥羽를 꽂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Ⅶ. 折風의名稱과語源

高句麗語는 文章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語彙研究에 依해서만 高句麗 研究가 可能하다. 高句麗語에는 服飾語彙가 몇 개 包含되어 있어 高句麗語 研究 뿐만 아니라 韓國古代 服飾史 研究의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남아있는 服飾어휘 가운데 折風이 있다.

中國 古 文헌에 보이는 折風이라는 명칭은 漢人 冠帽에는 使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折風이라는 말은 漢人이 알고 있는 말이지는 하였지만 漢語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假定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標意文字인 漢語의 字義와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假定도 可能하다. 따라서 漢籍에 나타나는 折風이란 말은 高句麗族의 冠모명을 그 음상을 들고 그것과 같거나 유사한 음상을 漢字를 빌어 音譯한 것을 古代 中國人이 그들의 記錄에 남겼을 것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

折風의 名稱에 대하여 李瀾은 星湖僊說(卷五上服食門)에서 「何謂折風 按 靈樞經 風從西北來 名曰折風 卽立冬之候也 似是催傷 萬物之義 此冠宜於冬寒故名也」라 하여 西北風名에서 由來된 이름이라 하였다.

李如星도 折風을 風을 折하는 冠帽라고 하여 折風이라는 말은 漢字의 意味를 取하여 해석하려고 한듯 보인다.⁷⁾

高句麗 冠帽에 對하여 여러 分野에서 論文이 발표되었음에도 星湖 以來 어느 學者도 折風의 名稱에 對하여는 다루지 않았다. 近來 高句麗 冠帽에 대하여 漢字는 標意文字이지만 漢字어휘 가운데는 非 漢語의 寫音이나 音譯 또한 많다는 點을 감안할 때 전파되거나 차용되기 쉬운 복식어휘를 漢字의 字意로만 해석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音譯된 漢字語彙를 字義로 해석하여 보아야 바른 意味를 찾을 수 없음은 自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比較언어학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折風이라는 말은 우리 주변의 여러 언어들과 비교하여 그것이 어느 언어와 가장 가까운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折風을 여러 언어들과 비교하여 그것이 어느 언어와 가장 가까운지 다음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折字는

- (1) 「廣韻」旨熱切「集韻」「韻會」「正韻」之列切 屑入聲
- (2) 「集韻」「韻會」「正韻」征例切 音制 霽去聲, *jyh*
- (3) 「廣韻」「正韻」杜解初
「集韻」「韻會」田黎節 音題 齊平聲, *tyi*

- (4) William, 古音 *til, tip*

風字는

- (1) 「廣韻」方戎切「集韻」方馮切「正韻」方中切 音楓 東平聲, *feng*.
- (2) 「集韻」甫凡切 咸平聲, *fan*
- (3) 「廣韻」方風切 音諷 送去聲, *feng*
- (4) William, 古音, *pong, póng, bong*, 現音 *Fung, fang*

7) 李如星, 朝鮮服飾考, 1947, p.190.

折風이라는 명칭은 Pers. *dulband, dulbänd, d'ölbänd, dülbend*(turban, sash)과 대응되는 말이다.

이것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言語속에 다양한 형태로 널리 퍼져 오래 사용되어 온 말이다.

Eng (1) 16C, *tolipane, tolepan, toliban, tulbant, talbant, tullipant, tulliband, tul(tel) bent, dulipan, tulban.*

(2) *torbant, turribant, turbanto,*

16-19C, *turbant, turband,*

16-17C, *turbante, turbent,*

17C, *turbond, turbat*

(3) 17C, *turben, turbine, turbane,*

16C, *turban*

이것들은 Pers. *dulband, dulbänd, d'ölbänd, dülbend*(turban, sash)의 변형이다. Per. *dülbend*의 Turk語 俗音이 *lülbent, tulbant, tul(i) pant, tolipant*이다.

OIt. *tolipante, tolipano*

mod. It., Sp., Pg., *turbante*; obs. F. *tolliban*(15th C.), *tulban, turbant*

Du. *tulband*, Ger, Da., Sw., *turban*

등은 위의 Turk.語에 그 根源이 있다. 英語 tulip의 語源도 Per. *dulband*(turban)의 Turk語 俗音 *tul(i)band*에 있다. 튜립 꽃모양이 turban의 모양과 유사한데서 얻은 이름이다. 흥미로운 것은 帽頂이 뾰족한 折風の 모양은 튜립꽃 모양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위의 例에서 보면 Pers. *dulbänd, d'ölbänd, dülbend, dulband*는 여러 言語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折風이라는 명칭도 위의 Persia語에 그 根源이 있으며 漢語 折風으로 기록된 이 고구려 말은 Pers. *dulbänd, d'ölbänd, dülbend, dulband*에서 유래된 고구려어 음역으로서 정확한 발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確證할 수 없으나 다른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漢語 折風에 가장 가깝게 음역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例示된 바이지만 現代 韓語 질빵(끈)이라는 말은 Pers. *dulband, dulbänd, d'ölbänd, dülbänd*의 변형으로 그 뜻도 turban이란 것 외 sash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자못 흥미로운 일이다.

現代 韓語 끈을 의미하는 질빵이라는 말이 고구려語 折風과 同音異義語로 Pers. 原義 卽 turban, sash의 두 뜻을 고스란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말 연구에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Ⅷ. 古代 中國의 弁과 高句麗의 折風

釋名釋首飾에 弁如兩手相合拊時也 以爵韋爲之謂之爵弁 弁麋皮爲之謂之皮弁以韃爲之 謂之韃弁也라는 것이다. 釋名の 說明에 依하면 中國 古代의 弁의 형태는 두 손을 서로 마주 합쳐서 손뼉을 칠 때와 같이 서로 마주 붙었을 때와 같은 모양인 것이다.

釋名에 依據하면 爵弁, 皮弁, 韃弁은 그 材料와 色이 다르다. 위의 弁名에서 皮弁과 韃弁이 實弁이고 爵弁이라고 하는 것은 弁字가 붙었지만 이것은 實際로 冕에 가까운 것이다.

實弁인 皮弁과 韋弁은 同制이고 이 두 弁의 差異는 그 材料에 있는 것이다. 皮弁은 白鹿皮로 만든 것이고 妹弁은 韋로 만든 것이다. 韋란 赤色물감을 들인 다문가죽(柔皮) 卽 赤韋인 것이다.

釋名에 依據하면 弁의 形態는 두 손을 서로 마주 붙쳤을 때와 같은 모양이다. 中國古代의 皮弁, 韋弁의 形態를 아는데 참고가 되는 예는 名物圖(그림 14), 禮器圖(그림 15), 三才圖會(그림 16)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것들은 縫合線의 數가 同一하지 않다.

三才圖會에 나타나는 皮弁의 數는 적다. 이러한 자료들로 볼 때 고구려의 折風 卽 狹義의 折風은 中國古代의 弁중에서도 皮弁과 같은 形態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中國古代 弁의 모양은 두 손을 마주 붙쳤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帽頂이 狹義의 三角形의 판모였다. 弁의 梁은 一梁인 것도 있었고 그 이상인 것도 있었다.

中國人의 一梁弁 卽 一梁 折風을 고구려어는 幘이라고 불렀다. 中國古弁의 모양은 左右 平面的이었으며 縫合線(梁)은 앞 中心과 뒷 中心을 걸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折風이라는 말은 古代 中國人이 알고 있는 말이었지만 漢語는 아니었던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釋名의 說明에 依據하면 弁의 形態는 두 손을 마주 붙쳤을 때와 같은 모양 卽 帽頂은 狹義하고 그것은 帽體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國古代 弁의 形態를 特徵지우는 가장 큰 要素는 그 材料를 어떤 모양으로 裁斷하였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記錄은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고 이에 관한 것은 앞에 例示된 古圖로서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裁斷되고 縫製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資料들에 依하면 中國古代의 弁(皮弁, 韋弁)은 帽弁의 數가 一定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四瓣(合縫)弁, 六瓣(合縫)弁, 八瓣(合縫)弁이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數의 弁弁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推斷할 수 있다.

高句麗人의 冠帽에 關한 中國記錄中에서 北史 列傳 東夷傳 高句麗條에는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冠曰 蘇骨多用紫羅爲之飾以金銀으로 隋書卷八一 高麗傳에는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이라고 있다. 이 두 史書는 같은 時期에 쓰여진 것이지만(北史 627A.D.作 隋書 629A.D.作) 두 編者들은 高句麗의 冠帽를 各已 折風과 皮冠으로 記錄하였다. 이러한 事實들은 우리에게 高句麗 冠帽를 바로 理解하는데 混同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러면 이 두 記錄의 折風과 皮冠은 어떤 關係가 있을까?

위의 人皆頭著折風, 人皆皮冠이라는 두 記述로 볼 때 그것은 同一物을 指稱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같은 時期에 살아서 著述하였던 中國의 두 著者가 高句麗의 모든 사람이 使用하였던 同一物인 그들의 冠帽를 한 사람은 折風, 한 사람은 皮冠이라고 指稱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對한 筆者의 見解는 그 當時에 弁形帽는 中國에도 있었고 高句麗에도 있었다(形如弁). 그것을 當時의 中國人은 그들의 言語로서 弁, 皮弁, 皮冠(弁은 皮冠이다)이라 불렀고 高句麗人은 그것을 折風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北史의 編者는 高句麗의 冠帽를 高句麗人이 불렀던 名稱 그대로 折風으로, 隋書의 編者는 中國 名稱대로 그것을 皮冠이라고 記錄했던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國古代의 弁에 관한 자료로서 고구려의 折風과 幘의 형태와 특징을 알 수 있다.

魏晉時代에 널리 使用되었던 帽이라는 帽도 그 形制에 있어서는 狹義의 高句麗의 折風과 同種의 帽에 속한다고 간주된다. 帽은 古皮弁의 形制이면서 皮弁이 鹿皮를 使用하여 만들어진 것과 달리 帽은 縑帛을 使用하여 만든 것이었다. 明代의 小帽子 小帽 또는 帽子라는 것도 高句麗의 折風에 속하는 형이다.

IX. 結 論

앞에서 논한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으면 다음과 같다.

高句麗人과 古代 中國人은 折風과 幘에 대한 意味를 다르게 사용했음이 발견되었다. 漢人의 折風은 高句麗人의 折風과 幘을 포함한 것이었고 그들은 高句麗人보다 折風이라는 말을 더 넓은 意味로 사용했다. 高句麗人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冠帽이름은 漢人이 折風이라고 사용했던 범위에서 소위 高句麗人이 幘이라고 불렀던 冠帽 卽 一梁折風(漢人의 명칭)을 제외한 折風 卽 一梁以上の 弁形冠帽만을 折風이라 불렀다.

高句麗人의 幘은 一梁折風이었다. 高句麗人에게 幘이라는 말은 漢人의 幘과는 그 意味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折風이라는 말은 古代漢人도 잘 알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그들의 言語化하지는 않았던 복식 어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折風이라는 어휘는 古代 漢人이 그들의 言語로는 弁이라고 불렀다. 折風의 형태는 끝이 뾰족한 冠帽였으며, 재료는 가죽을 사용하였다.

折風의 사용범위는 官吏와 使者 庶民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서 高句麗의 대표적인 冠帽의 하나였다. 折風의 양옆에 鳥羽를 꽂으므로 貴賤의 차이를 두었으며 金花折風帽도 있었다.

折風이라는 명칭은 Pers, *dulband*, *dulbänd*, *dölbänd*, *dülbend*에 대응되는 말이며 이것의 高句麗語 音譯이고 折風이라는 말은 高句麗語의 音譯이다. 折風의 語源은 *turban*, *sash*라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高句麗語 折風이란 말은 다른 여러 言語에서 *turban*의 여러 변형이 생긴 것처럼 *turban*의 원형인 *dulband*, *dulbänd*, *dölbänd*, *dülbend* 등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高句麗 高句麗人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冠帽을 볼 수 있지만 中國古史書에 說明되어 있는 高句麗人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冠帽은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龍岡 龍神塚벽화의 武士 2人이 쓰고 있는 冠帽이 高句麗人이 折風이라고 불렀던 것이었다.

漢人이 一梁折風이라고 불렀던 冠帽 卽 高句麗人 스스로는 幘이라고 불렀던 冠帽은 高句麗 高句麗 高句麗 高句麗에서 몇가지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신라고분 출토 유물에서도 高句麗人의 幘形의 一梁 折風은 金冠, 銀冠, 白樺樹皮帽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었다.

一梁折風 卽 高句麗人의 幘形 冠帽가 左右平面的인 冠이고 신라금관의 內冠이라고 알려진 冠이나 또한 신라고분 출토의 冠帽가 左右平面的인 冠帽이다. 이에 反하여 羅州 潘南里 출토 百濟 金銅寶冠의 內冠이라 하는 金銅弁形 帽은 蓮花紋과 唐草紋으로 장식되어 있고 前後平面的인 一梁折風形이다.

위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一梁冠帽라 하여도 梁이 前後로 있을 때와 左右로 있을 때가 있고 梁이 前後左右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冠帽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

參考文獻

康熙字典.

高句麗 古墳壁畫

舊唐書.

南史

南齊書

北史

辭海

三國志

三才圖會

隋書

詩經

新唐書

禮記

梁書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李龍範, 高句麗人の 鳥羽插冠에 對하여, 東國史學, 제4집, pp. 1~30. 東國大學校 史學會
1956, 12月.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朝鮮古蹟圖譜

冊府元龜

太平御覽.

通典

翰苑

後漢書

William, S.W.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